

YONHAP | 연합리페르
REPÈRE

- ➔ 목차
- ➔ 과월호
- ➔ 정기구독신청
- ➔ 사진구입



Travel_Malaysia

Langkawi

진정한 휴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랑카위

■ 사진: 글/이진옥 기자, 협찬/말레이시아 관광청, 말레이시아 항공, 메리타스 펠랑기 비치 리조트

여행자는 변덕스럽다. 번잡하고 화려한 야경을 즐길 수 있는 도시를 찾다가 하면, 시끄러운 속세가 싫다고 한가한 섬을 동경한다. 흰박스를 빌어보고 싶다고 지구 반대편의 추운 곳을 힘들게 찾으며, 해변가 야생나무에 몸을 기대고 느긋하게 오후를 보내는 자신을 그려보기도 한다. 당신이 옷장 깊숙이 박혀 있던 철 지난 수영복을 입고 싶을 때, 자판기에서 700원짜리 망고 주스 버튼을 무심코 누를 때, 맹그로브 나무가 무엇인지 백과사전을 뒤적일 때 난 랑카위를 떠올린다.



여행기자는 곤혹스럽다. 취재를 다녀온 뒤 여행지에 대한 장단점을 글과 사진으로 명쾌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 관광청이나 리조트 홍보 담당자가 아닌 이상 일방적인 홍보는 더더욱 할 수 없다. 그 럽다고 취재기자를 초청한 주최측이 당황할 정도로 안 좋은 점만 부각시킬 수도 없다. 이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최근 여행잡지들이 홍보매체로 전락했다고 불평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좋은 여행지는 있지만 나쁜 여행지는 없다. 여행을 다녀와서 무덤덤한 추억만 남겼다면 분명 여행지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곳을 선택하지 못한 탓이다. 여행 상품을 계약하기 전에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냉정한 자문자답이 필요하다.

랑카위 이야기를 하면서 ‘눈부신 태양, 깨끗한 백사장’이란 구태의연한 말은 굳이 필요없다. 동남 아시아의 이름난 휴양지는 달콤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해변과 리조트 등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여행 가방을 꾸리면서 긴장감 있는 일탈을 꿈꾼다면 서둘러 랑카위는 포기하기를 바란다. 유

감스럽게도 랑카위에서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매우 1차원적이다. 어떠한 긴장감도 없으며, 예정에 없는 일정도 없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만이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랑카위는 아직 사람들의 때가 덜 묻었다. 이미 많이 알려진 동남아시아 휴양지에서는 느긋하게 쉬 기보다는 사람 구경하는 것이 더 재미있을 정도로 관광객들이 북적이지만 랑카위는 어느 곳이나 조용하다. 랑카위 섬의 최대 변화가인 쿠아(Kuah)타운만 하더라도 한산하다. 일부 여행자들은 ‘랑 카위는 사람 보는 재미가 없다’고 불평하지만 값비싼 숙박료를 지불하고 휴양지에 온 이유를 먼저 생각해보자. 이슬람국가답게 어떠한 흥청거림이나 흐느적거림도 없다. 관광객들을 붙잡는 호객 행위도 보기 힘들다.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아 느긋한 휴가를 보내려는 연인, 가족 단위 관광객들 이 유독 눈에 많이 띈다.

랑카위 랑카위에서 난 사진작가 한 명에게서 난 사진 한 장을 보았다. 그 사진은 랑카위의 해변을 담은 것이었다.

랑카위 리조트에서 쉬다가 섬 관광에 나서고 싶다면 크게 3가지를 추천한다. 랑카위 관광은 산호 섬에서 스노클링을 하는 코랄(Coral) 투어, 99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랑카위의 대표적인 섬들을 배로 둘러보는 아일랜드 호핑 투어, 킬림 강을 따라 맹그로브 습지와 박쥐들의 서식지인 동굴을 보는 맹그로브 리버 크루즈가 대표적이다.

코랄 투어의 출발은 섬 중심지인 쿠아타운 페리터미널에서 시작한다. 페리터미널인 제티포인트(Jetty Point)는 페낭, 태국을 오가는 정기 선박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내 중심지보다 큰 쇼핑센터도 있으며 하루종일 사람들로 북적인다. 산호섬 관광에 이용되는 배는 크루즈용으로 냉방시설이 있는 1, 2층 객실로 구분되어 있으며 1층에는 매점도 있다. 출발한 지 1시간 30분 정도면 ‘보석의 섬’이라고 불리는 파야(Pulau paya) 섬에 도착한다.

섬 앞에 정박해 있는 바지선에서 스킨스쿠버, 스노클링 장비를 빌리면 열대어와의 만남이 시작된다. 이곳에서는 아직까지 열대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판매하는 빵가루를 구입하면 좀더 재미있게 열대어를 관찰할 수 있다. 그동안 푸켓, 하와이 등 유명한 스노클링 관광지를 취재했었지만 이곳이 가장 역동적이다. 다른 곳들은 해변에서 스노클링을 하기 때문에 수심이 얕아 열대어가 다양하지 않았지만 랑카위 스노클링은 섬 앞에 있는 바지선에서 잠수한다. 수심이 깊어 초대형 물고기나 상어까지 볼 수 있다. 스노클링 후에는 보트를 타고 섬 선착장에 도착해 파야 섬 해변가까지 올라온 열대어를 보거나 해변에서 일광욕이나 수영을 즐겨도 좋다.

15인승 스피드보트로 랑카위 섬들을 둘러보는 아일랜드 호핑 투어는 제일 먼저 플라우 다양 분팅(Pulau Dayang Bunting)이라는 섬을 방문한다. 플라우 다양 분팅은 랑카위 군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으로 ‘임신한 처녀의 섬’이란 뜻이다. 섬이 임신한 여자가 옆으로 누워 있는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섬 선착장에 내리면 먼저 원숭이가 반긴다. 섬에서 사는 야생 원숭이들로 관광객들에게 먹이를 달라고 조른다. 무심코 과자나 청량음료를 들고 있다가 원숭이들에게 빼앗길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다. 언덕길을 5분 정도 오르면 다양 분팅(Dayang Bunting)호수가 나온다. 빗물로 만들어진 이 호수에서 수영도 할 수 있으며 산책로를 통해 호수 주변도 둘러볼 수 있다. 다음은 베라스 바사(Beras Basah)섬에 들른다. 이곳에서는 패러글라이딩이나 바나나보트 등 해양 레포츠를 즐기거나 해변가 그늘에 앉아 수평선을 보면서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괜찮다.



랑카위 섬 주변에 있는 맹그로브 늪지를 배로 다니며 박쥐 등 야생동물들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맹그로브 투어는 랑카위 투어의 핵심이다. 동남아시아 휴양지마다 산호섬 관광이나 호핑 투어는 있지만 맹그로브 투어는 그렇게 많지 않다. 말레이시아, 태국 등 일부 지역에서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랑카위에서 시간이 없다면 다른 것보다 맹그로브 투어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선착장에서 9인승 보트를 타고 킬림(Kilim) 강을 달리면 구아 케라와(Gua Kelawa)라는 박쥐 동굴에 도착한다. 동굴 입구에 들어서면 박쥐들의 배설물 냄새가 코를 찌른다. 미리 가져간 손전등으로 천장을 비추면 박쥐 수천 마리가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점심식사를 위해 선착장에 도착하면 투어 대표 소재인 맹그로브 원시림을 볼 수 있다. 맹그로브는 아열대식물로 킬림 강 주변에 많이 서식한다. 늪에 엉켜 있는 맹그로브 나무는 가지가 어느 정도 자라면 땅에 떨어져 다시 위로 자란다. 이렇게 촘촘히 자란 나무는 해일이나 지진 때 방파제 역할을 해서 2차 재해를 예방하기도 한다. 선착장 주변에는 양식장이 있어서 현지에서 양식되는 어류를 볼 수 있으며, 즉석에서 요리도 해준다.

4.



랑카위 섬 내부 관광 가운데 최고를 꼽으려면 단연 랑카위 전망대다. 전망대는 섬 북서쪽 끝 오리엔탈 빌리지에 있으며 케이블카를 이용해야 한다. 케이블카는 길이 2.2km에 달하며 해발 710m의 전망대까지는 20분 정도 걸린다. 정상에는 2개의 전망대가 있는데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두 곳을 오가며 경치를 비교해 볼 수도 있다. 케이블카 왕복 운임은 25링깃(1링깃은 약 330원)이다.

케이블카 승강장이 있는 오리엔탈 빌리지는 동양의 각국 건축물과 문화가 전시된 테마파크로 우리나라 테마파크와 비교해 규모는 작지만 내부를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아 둘러볼 만하다. 랑카위

전설의 주인공인 ‘마하수리’묘소도 가볼 만한 관광 명소다. 먼 옛날 아름답고 충명했던 마하수리는 추장 부인의 질투를 산 나머지 무고하게 목숨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죄가 있다면 붉은 피를 흘릴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새하얀 피를 흘리고 이 섬에서 8세대 동안 재앙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 후 랑카위에서는 흉작과 어획량 급감 등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다. 8세대가 지난 후 마하수리와 얼굴이 같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20세가 되어서야 랑카위에서 재앙이 사라졌다. 현지 사람들은 마하수리의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믿고 있으며 랑카위 공항 대합실에 걸려 있는 마하수리의 초상화는 그들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다.

이밖에 수요일 저녁 쿠아타운에서 열리는 노천 시장, 말레이시아 최대의 수족관인 언더워터 월드(Underwater World), 랑카위 악어 농장 등이 있다. 하지만 휴양 여행지의 성격상 많은 곳을 둘러볼 수는 없다. 랑카위가 아니면 좀처럼 하기 힘든 맹그로브 투어를 먼저 선택한 뒤 시간이 남으면 다른 투어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랑카위는 체류형 휴양지다. 하루 숙박료가 수십만 원 하는 특급 리조트에서 잠만 잔다면 그야말로 낭비다. 발품 팔아 섬을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싶다면 차라리 저렴한 숙소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유럽 사람들은 휴양지 리조트를 선택할 때 외딴 곳을 선호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리조트 시설과 위치가 모두 좋은 곳을 선호한다. 금쪽 같은 시간을 내서 모처럼 나서는 휴가에 욕심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랑카위에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면 ‘펠랑기 비치 리조트(Pelangi Beach Resort)’를 추천한다. 말레이어로 ‘무지개’란 뜻의 펠랑기 리조트는 일상의 번잡함을 피해 느긋한 게으름과 편안함에 묻히려는 여행자의 욕구를 그대로 만족시켜준다. 350개의 객실은 말레이시아 전통 목조 가옥인 캄퐁(Kampung)스타일로 지어졌다. 대도시 호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갑고 무거운 대리석 장식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 대신 객실의 높은 천장과 넓은 발코니, 리조트 내 넓은 공간은 여행자들에게 내 집 같은 편안함을 준다.

객실을 나서면 바로 수영장과 해변이기 때문에 물놀이를 즐기기도 편리하다. 일부 대형 리조트들이 스탠더드급 객실들을 리조트 끝에 배치해 동선이 매우 불편한 것과 비교해 펠랑기 리조트는 어떤 객실을 선택해도 수영장과 해변으로 이동하기 편리하다. 본래 비서도 특급 객실들만

번 객실을 선택해도 수영장, 스파, 식당, 해변으로 이동하기 편리하다. 부대시설도 특급 디소트나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리조트에는 말레이, 중국, 태국, 바비큐 레스토랑이 있으며 물놀이나 선텐을 하다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호라이즌 앤 캐스케이드 풀 바(Horizon & Cascade Pool Bar)도 있다. 특히 풀 바는 수영장 물속에 좌석이 있어 리조트 이용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액티비티를 즐기고 싶다면 로비 데스크에서 신청만 하면 된다. 여행자들이 오히려 시간이 없어서 이용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편의시설이나 액티비티 종류가 많다. 예약만 하면 자전거에서부터 수상스포트츠, 무인도 표류 여행, 야간 정글 나무타기 등 이색 레저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물놀이를 몸이 피곤하다면 리조트 안쪽에 있는 테라타이 스파(Teratai Spa)를 추천한다. 발 마사지를 비롯해 스웨덴, 인도네시아, 타이, 중국 마사지를 선택할 수 있지만 트리트먼트, 스크럽, 마사지를 모두 받을 수 있는 패키지 코스가 좋다. 가격도 2시간 동안 약 420링깃으로 다른 특급 리조트와 비교해 합리적이다. 리조트의 위치는 체낭 해변 북쪽이며 공항에서 차로 15분 소요된다. 섬 중심지인 쿠아(Kuah) 시내를 제외하고 리조트 부근이 제일 변화하기 때문에 도보로 수족관, 쇼핑센터, 음식점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Golf club

랑카위에는 3개의 골프 클럽이 있지만 현재는 2개만 운영 중이다. 섬 서북쪽에 있는 다타이 베이 골프 클럽(Datai bay Golf Club)은 18홀 규모로 지난 1992년 개장했다. 이 클럽의 코스는 무척 아기자기하다. 다음 홀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코스 주변이 뺏뺏한 나무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밀림 속을 거닐며 삼림욕을 하는 느낌마저 든다. 18홀을 마치면 바닷가 쪽에 19홀이 나오는데 경치가 좋아서 골퍼들에게 인기가 특히 높다. 구농 라야 골프 클럽(Gunnung Raya Golf Club)은 섬 동쪽에 있다. 홀마다 개방감이 좋아서 초심자들에게 인기가 높으며 가격도 다른 골프 클럽보다 저렴한 편이다.

Information

화폐 말레이시아 링깃(Ringgit)을 사용한다. 3월 17일 현재 1링깃은 약 330원이며 출국 시 인천공항에서 환전하거나 현지 공항에 있는 ATM기기를 통해서도 현지 화폐 인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행자들이 대부분 랑카위 시내와 떨어진 리조트에서 숙박하므로 미리 인천공항에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

교통 현재 우리나라와 랑카위를 운항하는 직항 노선은 없다. 쿠알라룸푸르에서 국내선으로 갈아타야 하며 쿠알라룸푸르에서 랑카위까지는 항공기로 1시간 소요된다. 말레이시아항공이 쿠알라룸푸르와 랑카위 구간을 하루 5편 이상 운항하기 때문에 여행 첫날 저녁 식사는 랑카위 리조트에서 즐길 수 있다. 섬 내 이동은 택시를 이용해야 하며 리조트 내 데스크에서 투어를 신청하면 교통편도 함께 제공된다.

쇼핑 랑카위가 면세 지역이기는 하지만 가급적 쿠알라룸푸르 공항 면세점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랑카위 시내에 쇼핑센터가 있지만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 아니다. 간단한 기념품은 랑카위에서 구입해도 되지만 화장품, 술, 의류, 담배 등은 말레이시아를 출국할 때 공항 면세점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비자 말레이시아는 체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자가 필요 없고, 최근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 카드도 폐지됐다.

음식 리조트에 체류한다면 아침, 저녁 식사는 뷔페식이 나오겠지만 점심 식사 정도는 현지식에 도전해보자. 말레이시아는 다민족국가답게 음식 종류도 무척 다양하다. 서로의 문화가 음식에 녹아들고 지역에서 재배되는 허브가 특유의 향과 매운 맛을 더하여 독특한 랑카위 음식으로 만들어졌다. 저렴하게 맛보려면 시내 중심지인 쿠아(Kuah)와 체낭 비치(Cenang Beach) 주변 길거리 식당을 찾으면 된다. 매운 카레 국수인 락사 케다(Laksa Kedah)와 우리나라 꼬치구이와 비슷한 사테(Satay)가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좋다.

주의사항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국가답게 사회 분위기가 정돈되고 반듯하다. 휴양지인 랑카위에 체류하는 여행자로서 크게 조심해야 할 것은 없지만 사원 등을 방문할 때는 노출이 심한 옷은 삼가야 한다. 특히 현지인들은 자신들의 국가, 역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는 것이 최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